

지역 소식통

정읍시, 단풍미인쇼핑몰 특별할인 기획전 운영

정읍시 농특산물 온라인 마켓 1번지인 단풍미인쇼핑몰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할인행사를 기획 운영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농특산물 거점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단풍미인 쌀과 한우, 수박 등을 비롯해 각종 가공식품과 발효식품 등 140여 개 상품을 최대 3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또 행사 기간 중 신규회원가입 고객에게는 감사의 의미를 담아 3천 포인트 지급한다.

특히,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총 80명을 추첨해 1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고객 감사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단풍미인쇼핑몰이 용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모니터링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 만족 설문 이벤트를 진행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계화 유채꽃축제 경관하마당 3년만에 열려

따사로운 봄 햇살이 여름을 예고하듯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계화면 전망대에서 계화 유채 경관단지협의회(회장 고성욱) 주관으로 '계화 유채꽃축제 경관하마당'이 관광객 및 지역주민 등 250여명이 모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전시 도매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고 계화유채쌀, 노을감자, 잡곡, 누룽지 등 다양한 농특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성공적인 도농교류의 장을 이루었다.

또한 360만평(2.1ha)에 달하는 드넓은 계화 간척지 들녘을 유채꽃 물결로 노랗게 물들은 모습이 참석자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고 유채꽃을 배경으로 포토존을 설치해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준비한 음식을 참석한 주민들이 나누어 먹으며 농사 시름을 잠시나마 덜고 주민 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소통과 공감의 장 마련”

정읍시, 첨단과학산단 핵심 그룹들과 지역발전 집중 논의

정읍시와 신정동 첨단과학산단내에 소재한 지역 혁신기관들이 지역발전 전략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시는 28일 전북대 첨단과학 캠퍼스 회의실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안전성평가 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방사선진흥협회, (재)농축산유통물산산업육성지원센터, 전북대 첨단과학 캠퍼스, 한국전기안전공사 핵심 연구자들과 함께 지역발전 방안을 위한 열린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정읍시와 지역 내 핵심 연구기관과의 협력방안 도출과 지역의 혁신성장 발전정책 수립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방산배



전기안전연구원센터장의 기관설명을 시작으로 각 연구자들의 자유발언을 통한 아이디어 제시와 형식에 구애 없는 자유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또 시정 핵심사업 설명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발전 가속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와 함께 신정동 연구단지 내 종사자와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과학산단지 핵심 기관과의 지속적인 브레인스토밍을 추진 새로운 지역의 발전정책 수립을 위한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최재용 부시장은 “앞으로도 첨단산단 핵심 기관과의 지속적인 브레인스토밍을 추진, 산·학·연·관 협력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발전정책 수립을 위한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더 성장하는 부안 만들 기회를”

권익현 부안군수 예비후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100만원 지원

권익현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 수수료 지원을 약속했다.

권익현 예비후보는 재선이 되면 전년도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매출액의 0.8%인 카드수수료를 1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은 가게 경영 부담이 계속되는 상황에, 최근 인플레이션에 의한 물가 상승과 함께 지역 인구감소로 인한 경



제 침체는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공약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가게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원액의 일부는 지역내 소비 촉진을 위해 부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권익현 예비후보는 “매번 바뀌는 군수로는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한번 더 권익현 선택으로 “더 성장하는 부안”을 만들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유채향기 가득 동진 경관축제 3년만의 부활’

부안군, 봄을 만나는 시간 개최

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유채향기 가득한 부안 동진 경관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렸다.

부안군 동진면 18단지 경관보존추진위원회는 28일 동진면 신월마을 일원에서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을 만나는 시간, 유채향기 가득한 동진 경관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축제는 올 한해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동진면 풍물단 공연을 시작으로 경관관리·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 주민들이 손수 각종 음식을 준비해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즐기며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섯노란 유채꽃밭을 거닐면서 주민자치 생활 프로그램의 일환인 기타·색소폰 공연을 관람하고 포토존에서 사진촬영을 하는 등 햇살 좋은 봄날의 설렘을 가



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유채향기 가득한 부안 동진 경관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렸다.

득한 즐거움 한 때를 보냈다.

김종승 동진면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축제를 개최하게 되니 지역에 모처럼 활기가 도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유채경관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청보리밭축제, 코로나 어려움 딛고 개최

대한민국 대표 경관농업 축제인 '제19회 고창청보리밭축제'가 오는 30일부터 열린다. 2019년 마지막 축제 이후 3년만이다.

28일 고창군에 따르면 '제19회 고창청보리밭축제'가 오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16일간) 고창군 공음면 화원관광농장 일원에서 열린다. 교통통제와 입장객 방역기간은 지난 23일부터 축제가 끝나는 날인 5월15일까지

계속되고 있다.

축제는 보리밭 사잇길 걷기를 포함해 친환경 청보리밭과 어울리는 약 1.5km의 차있는 거리 조성, 트랙터 관람차 체험, 트리아트길 체험이 진행된다.

또 영화와 드라마 촬영장소, 바람개비와 전망대를 통한 청보리밭 내 특색있는 경관 제공, 먹거리·전통놀이·향토식품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특히 축제기간 중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고창농악보존회에서 거리공연을 통해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창군 축제 관계자는 “올해 청보리밭축제는 코로나19로부터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만큼 많은 관광객이 동시간대 모이는 대규모의 행사는 자제하고 관광객의 방역안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경제·민생현장 규제혁신 정비 나서

정읍시가 행정안전부의 규제인증책 입제 시행에 발맞춰 정읍시 자치법규에 등록된 각종 규제 정비에 나섰다.

규제인증책입제는 주민·기업 등 민간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에서 벗어나 담당 공무원이 직접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제도다.

자치법규에 등록된 규제 중 다른 지역에 비해 과한 규제나 제정 또는 개정이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소관부서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폐지 혹은 완화하게 된다.

시는 특히 올해부터 기존 등록규제 중 주민·기업의 민원 이력이 있거나 경제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개선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 규제를 선별해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7일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

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자치 법규상 등록된 규제 총 608건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정비 대상을 확정했다.

점검 결과 상위법령 위반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오류가 있는 규제와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88건을 폐지·완화하고, 660건은 존치할 것을 의결했다.

시는 시민과 기업 등이 자치법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 요청하는 때에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거나 개선해 시민과 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최재용 정읍시장 관대행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등록규제를 적극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해 현장과 민생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